



속삭이는 숲 친구들

MY HERO STORY

★하운★

하운이의 숲의 속삭임 수호자

첫 번째

My Hero Story

MY HERO STORY



숲 속 길은 오늘따라 유난히 반짝였어요.

초록빛 잎사귀들이 햇살을 받아 살랑살랑 흔들렸지요.

하얗이는 이끼 덮인 돌길을 따라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발바닥에 포근한 이끼 감촉이 닿을 때마다 기분이 좋아졌어요.

허리춤에 달린 작은 가죽 주머니가 가볍게 흔들렸어요.

주머니 안 작은 나뭇잎 펜던트에서 희미한 온기가 느껴졌지요.

숲이 속삭이듯 바람 소리를 냈어요.

하얗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더 깊은 숲 속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길이 두 갈래로 나뉘어져 있었어요.

어느 쪽이 원래 길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하운이는 두 발을 모으고 조용히 멈춰 섰어요.

왼쪽 길도, 오른쪽 길도 똑같이 울창한 나무들이 막고 있었지요.

'어디로 가야 하지?'

한 손을 턱에 살며시 올리며 하운이는 조용히 생각했어요.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흩어지며 가는 빛줄기들이 내려왔어요.

숲은 여전히 조용하고 부드럽게 속삭였지만, 하운이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작은 풀숲에서 하얀 털이 살짝 보였어요.

동그랗고 포동포동한 흰 토끼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어요.

"길 잃었어? 우리가 도와줄 수 있어."

토끼는 작고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머리 위 나뭇가지에서는 갈색 다람쥐가 큰 꼬리를 살랑이며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나는 토리야, 저 아이는 콩이고!" 토리가 밝게 재잘거렸어요.

하윤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둘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낯선 만남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어요.





콩이 작은 목소리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나는 멀리 보는 게 어려워. 그게 내 약점이야."

토리도 나뭇가지 위에서 머리를 긁적이며 말했어요.

"나는 빠르긴 한데, 길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게 문제야."

하윤이는 작은 나뭇잎 펜던트를 손바닥 위에 살며시 올려놓았어요.

희미하던 빛이 손온기를 받아 조금 더 따뜻하게 빛났어요.

"그럼 셋이 같이 가면 될 거야."

하윤이가 콩과 토리를 향해 손을 내밀었어요.





셋은 그렇게 함께 숲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발소리 셋이 이끼 길 위에서 나란히 울렸어요.

토리가 날새게 나무 위로 뛰어올라가 멀리 내다봤어요.

"저 앞에 길이 오른쪽으로 꺾여!" 토리가 활기차게 외쳤어요.

콩은 코를 킁킁거리며 발 앞 풀 냄새를 조심스럽게 맡았어요.

"이쪽 발자국이 안전한 길이야. 풀 냄새가 달라."

콩이 작게 말했어요.

하윤이는 둘이 알려준 것들을 마음속에 차곡차곡 모았어요.

'셋이 함께라면 분명 길을 찾을 수 있어.' 하윤이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건다 보니 어느새 셋 사이에 이야기가 생겼어요.

토리가 도토리 큰 아껴두는 비밀 장소 얘기를 재잘거렸어요.

콩은 귀를 살짝 흔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는 이끼 위에서 자는 게 제일 좋아." 콩이 작게 말했어요.

하윤이는 둘의 이야기를 들으며 어깨가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처음에 낯설던 두 친구가 이제는 옛날부터 알던 것 같았어요.

발소리 셋이 이끼 위에서 사이좋게 울렸어요.

하윤이는 이 길이 조금도 무섭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숲 한가운데 작은 빈터에 다다랐을 때, 하운이는 멈춰 섰어요.

빈터 가운데에 아주 작은 새싹 하나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숲의 작은 빛 씨앗이야." 토리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 새싹이 시들면 숲 전체가 어두워져."

콩이 발 옆 풀잎 위에서 조심스럽게 물방울을 굴렸어요.

물방울이 반짝이며 새싹 위로 천천히 떨어졌어요.

하운이는 무릎을 굽혀 새싹 곁에 낮게 앉았어요.

'이 작은 새싹을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하운이는 생각했어요.





하운이는 두 손바닥을 새싹 위에 살며시 포개어 올려놔요.

손 안에서 따듯한 기운이 천천히 새싹 쪽으로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새싹이 살짝 빛나며 잎을 한 장 조용히 펼쳐놔요.

허리춤 가죽 주머니 속 작은 나뭇잎 펜던트도 함께 빛났어요.

"숲이 고마워하는 것 같아." 콩이 귀를 쫑긋 세우며 속삭였어요.

토리는 꼬리를 살랑이며 아무 말 없이 그 빛을 바라봤어요.

하운이도 말없이 새싹을 바라보았어요.

따뜻하고 둥근 빛이 셋의 얼굴 위에 고르게 번졌어요.



셋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숲 입구 쪽으로 걸어 나왔
어요.

아까와 똑같은 길이였지만, 이제는 조금도 낯설지
않았어요.

하운이의 허리춤 주머니 속 작은 나뭇잎 펜던트가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날 하운이가 보여준 손을 내민 순간은 작은 빛처
럼 마음 한편에 오래 남게 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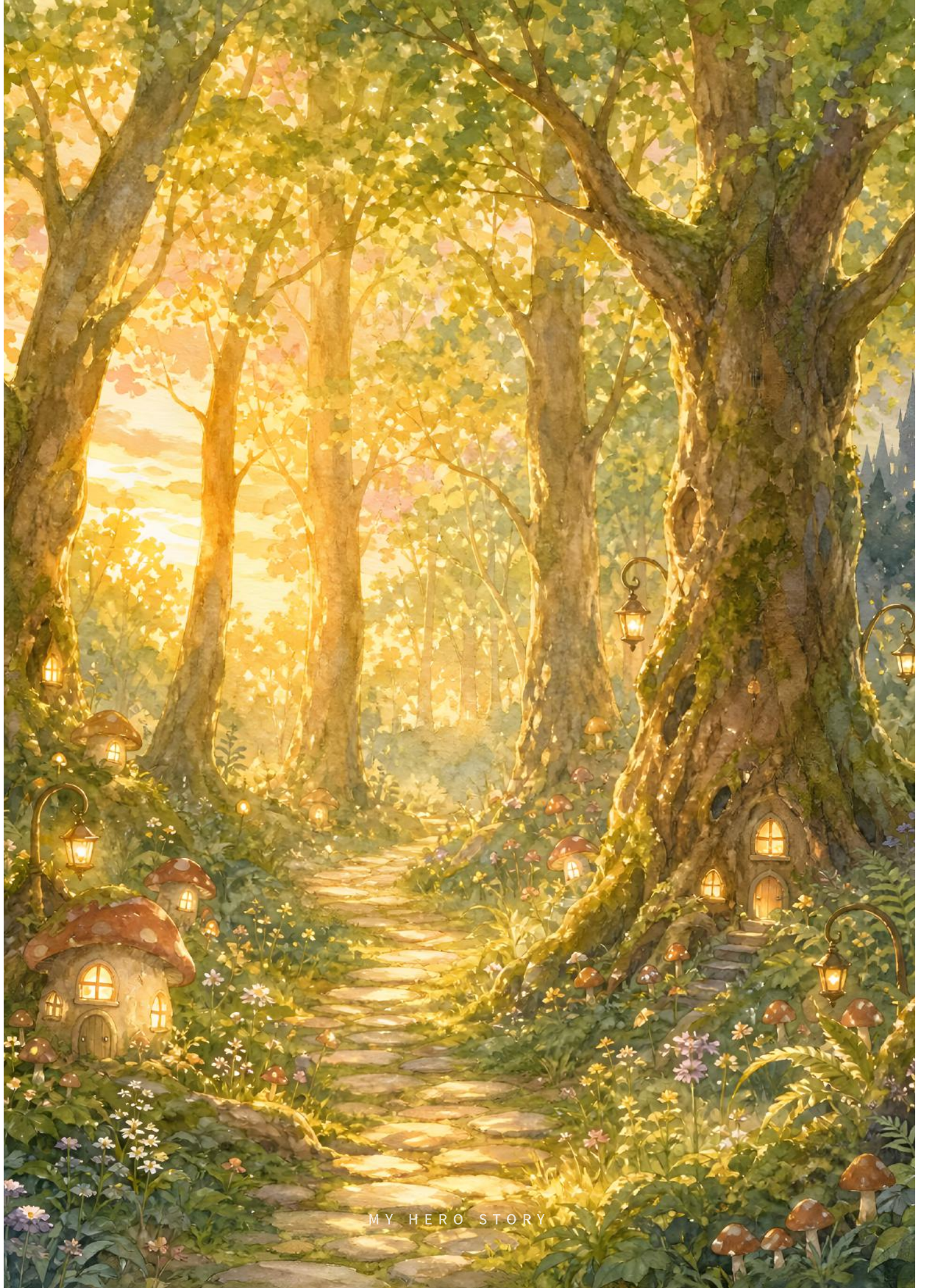
숲 어딘가에는 아직 만나지 못한 용감한 친구들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MY HERO STORY

부모님의 한마디

이 순간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주세요



MY HERO STORY